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찬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기간 :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 Honduras, Las Flores (최 문재 선교사)

사역 : 의료, 심방, 전도, 어린이

선교팀원 : 이민영, 김동수, 김중환, 김현정, 박인주, 서영수, 서현숙, 석동훈,
신미라, 이승택, 이영순, 최정민, 한주루, Edwin 김,
기다엘, 기유빈, 나유빈, Eunice 안, Chris 안, Cameron Warner

기도 제목

1. 모우아까(Moacca) 마을을 방문, 기도, 진료, 사역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도록
2. 모우아까 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3. 최 문재 선교사님과 세광교회가 서로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4. 팀원들을 위해 : 한 마음 되도록; 건강과 안전; 새 힘과 비전

단기선교팀 기도와 훈련 모임을 금일(1 월 7 일)부터 시작합니다.

- 공동의회 공고

일시/장소 : 2018 년 1 월 21 일(주) 예배후 본당

안건 : 2017 년 결산 및 2018 년 예산, 감사 선출

2017 년 12 월 안내 : 하 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 송 성현 집사 / 시편 139:1-6, 13-18

이번 주 친교 : 한 주루 권사 / 임 수연 집사

다음 주 친교 : 이 영순 권사 / 홍 영순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일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8 권 01 호

2017 년 1 월 7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8 년 표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Which is Christ in You)” (골 1:27)

주일에배순서

2018 년 1 월 7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8 장 (통 9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552 장 (통 358 장) 다함께 "아침 해가 돋을 때"
대표기도 (Invocation)	시편(Psalms) 29 편 신 미라 권사
찬양 (Choir)	"하늘의 주"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Offering and Pastoral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2 Cor) 5:17; 골(Col) 1:13-23 상 인도자
설교 (Sermon)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289 장 (통 208 장) 다함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2017. 12. 31. 주일 설교 요약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세례요한

(눅 1:13-17, 76-77; 눅 7:24-28; 요 3:28-30)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일생은 오직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그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룩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일생을 살펴봄으로 우리도 예비되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단 한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천국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날, 그의 공의로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하는 날, 그가 다스리시는 날을 맞을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눅 1:17; 말 4:6). 여호와의 날은 무엇보다도 공의의 심판 날이기에 회개하지 않고는 맞을 길이 없습니다. 혈통으로도 의로운 행위의 공로로도 그 날을 견딜 수 없습니다. 죄를 애용히 여기며 회개하는 자, 궁핍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만이 천국을 맞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를 슬퍼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해주신 소식이 기쁜 복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그야말로 복된 천국의 소식입니다. 벗을 길 없는 죄를 슬퍼하며 울던 자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이 복음입니다. 광야에 새로 난 길이고 마른 강바닥에 솟는 생수입니다. 열매없는 나무를 찍어버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엄중한 말씀은 그 말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위로의 복음입니다.

회개와 간구로 준비된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께서 우리 삶 속으로 오십니다. 광야에 난 대로처럼, 흑암에 비친 빛처럼.

요한의 일생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소모되었습니다. 탄생의 예언이 그였고, 태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며 성령 충만했습니다. 의식주도 오직 예수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것이 기쁜인 신랑 친구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만나는 것이 자기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자기가 쇠하는 것이 자기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엔 가장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과녁에 꽂히는 화살처럼 그 메시지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큼니다. 요한은 예수를 예비한 사람이었지만, 천국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친랑 친구이기에 신랑이 유명해지면 기뻐지만, 천국은 신랑을 만난 신부들의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비한 요한의 위대함이 예수님이 흥하도록 자신은 쇠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의 가치와 보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것이 거듭난 구원이라면, 믿는 사람의 삶의 보람과 능력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 보좌에 앉으신 것은,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 삼으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그 영혼의 만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온전한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능력과 거룩과 기쁨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만이 흥하는 2018 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육신의 삶은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의의 능력을 입고 은혜만을 간구하여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